

## 성서 아람어의 어순에 관한 연구

권성달\*

### 1. 서론

아람 사람들은 기원전 10-11세기 경 유프라테스 강 상부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처음으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이다.<sup>1)</sup> 아람어는 사용 인구가 적지만 오늘날까지도 구어로써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람어는 시기에 따라 고대 아람어(기원전 1000년-기원전 700년), 공식 아람어(기원전 700년-기원전 200년), 중기 아람어(기원전 200년-기원후 200년), 후기 아람어(기원후 200년-기원후 1000년), 현대 아람어(기원후 1000년-현대)로 나눈다.<sup>2)</sup>

이 다섯 시기 중 고대 근동지역에서 약 500년간 국제어(*lingua franca*)로 사용된 공식 아람어(Official Aramaic)로 기록된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아람어 성서이다. 성서 아람어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시기에 남왕국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로 유배를 감으로써 그곳에서 사용되었던 공식 아람어로 성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서 아람어에 대한 연구는 공식 아람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당시 아람어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인 고대 근동 지역에서 500년 동안이나 국제어로서 위상을 떨쳤던 것과

---

\*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에서 구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웨스트민스터신학대 학원대학교 조교수, 구약학. [sungdal61@hanmail.net](mailto:sungdal61@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5S1A5A8014655) 2016년 대한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2016년 10월 22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1) F. Skolnik, *Encyclopaedia Judaica*, 2nd ed., vol. 2 (Detroit: Thomson Gale, 2007), 337-338.
- 2) E. Qimron, *Biblical Aramaic* (written in Hebrew) (Israel: Ben-Gurion University Press, 1993), 1-2; 슈무엘 파스버그(S. E. Fassberg), “아람어 역사와 문법”, 『고대 히브리어 연구』, 최창모, 박미섭 편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280.

는 달리 성서에서 아람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sup>3)</sup> 세계 구약 학계에서 성서 아람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성서 아람어의 음운론이나 형태론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어순에 관한 연구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어순은 한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순과 특이한 어순에 대한 구분은 문장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이한 어순을 포함한 문장에서는 대개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서 아람어의 어순에 관한 연구는 성서 아람어 텍스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확한 해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성서 아람어뿐 아니라 고대 아람어 역본들인 타르굼 옹켈로스, 타르굼 요나탄, 타르굼 네오피티 등과 아람어의 방언 중 하나인 시리아어로 기록된 페쉬타 등의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성서 아람어는 우가리트어, 페니키아어, 히브리어, 아랍어 등이 속해 있는 셈어(Semitic language)에 속한 언어이다.<sup>4)</sup> 셈어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으로 알려진 것은 동사가 문두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주어 역시 동사 뒤에 위치하여 ‘동사-주어-목적어’(VSO)의 어순을 갖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셈어의 특징이다. 우가리트어, 페니키아어, 히브리어, 아랍어 등이 모두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성서 아람어의 어순은 셈어 중에서도 동일한 서북 셈어에 속하는 우가리트어, 페니키아어, 히브리어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서 아람어 문장에서 타동사가 사용되는 경우 목적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것뿐 아니라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성서 아람어로 된 모든 문장의 어순을 상세히 살펴본 후 일반적인 셈어의 어순과 다른 어순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최초의 셈어인 아카드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방법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3) 구약 성서에서 아람어로 기록된 본문은 스 4:8-6:18; 7:12-26; 단 2:4-7:28; 렘 10:11과 창 31:47의 일부분이며 신약 성서에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창 31:47의 아람어는 문장이 아니라 고유명사이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4) 셈어라는 용어는 대개 성서학, 신학 계통에서 주로 사용하며, 일반 학계에서는 아프리카아시아어족(Afro-Asiatic language)이라는 용어를 보다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프리카아시아어족은 셈어와 함어를 포함한 어족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보다 세분화시킨다면 셈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변형규칙이 적용되기 전의 심층구조에서의 어순을 살펴보는 생성문법론자들을 따르지 않고 빈도수가 높은 어순을 기본어순으로 인정하는 유형론자들의 견해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성서 아람어의 모든 문장을 조사했다.<sup>5)</sup> 성서 아람어로 기록된 모든 텍스트는 268절(verses)이므로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로 진행했다. 우선 문장을 동사문장, 명사문장, 분사문장, ‘하바(הוה)’문장, 기타 문장으로 나누어 조사했다.<sup>6)</sup> 동사문장에서는 동사의 형태와 시제는 물론 통사요소 중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의 위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또한 독립절과 종속절의 여부와 서술체와 대화체를 변수로 하여 그 변수들이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명사문장에서는 동질문장과 비동질문장,<sup>7)</sup> 의미론적 범주,<sup>8)</sup> 주어와 술어의 형태,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여부,<sup>9)</sup> 주어와

- 
- 5) 본 연구에서는 ‘문장’(sentence)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독립절뿐 아니라 종속절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므로 ‘문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절’(clause)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나, 많은 학자들이 그 두 용어를 구분시켜 사용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필요에 따라 ‘문장’과 ‘절’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 6) 일반적으로 성서 언어학자들은 ‘주어나 술어가 명사이거나 그 상당어구인 문장’을 명사문장으로 정의하며 ‘술어적 분사’가 들어간 문장도 ‘명사문장’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술어적 분사가 포함된 문장은 명사문장에 분류하지 않고 별개의 문장 범주에 넣고 작업했다. 술어적 분사가 들어간 문장은 의미적으로는 동사문장에 가까울 뿐 아니라 명사문장과 어순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성서 아람어에서는 다른 셈어에 비해 분사의 사용빈도수가 매우 높다. 또한 분사가 정동사(finite verb)의 감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성서 아람어에서 분사문장에 대한 분석은 셈어들과의 비교는 물론 성서 아람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사문장(nominal sentence)을 동사 없는 문장(verbless sentence)으로 보지만 명사문장은 심층적으로 볼 때 ‘하바(הוה)’(=to be)가 생략된 문장이다. ‘하바(הוה)문장’을 구분하여 취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바(הוה)’가 형태적으로 동사와 동일하게 변하므로 ‘하바(הוה)’가 들어간 문장을 동사문장으로 분류하나, 심층적으로는 명사문장에 가깝기 때문에 ‘하바(הוה)’가 들어간 문장을 ‘하바(הוה)문장’으로 따로 분류하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7) 성서 언어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사문장을 정체파악적인 문장(identification sentence)과 분류문장(classification sentence)으로 나누고 정체파악적인 문장은 주어-술어의 어순을 갖고, 분류문장은 술어-주어의 어순을 갖는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파악, 분류 등의 용어가 부적절한 용어라 판단되어 동질문장과 비동질문장이라는 용어로 대신 사용한다. 동질문장이란 ‘그는 모세다’와 같이 주어와 술어의 지시물(referent)이 동일한 문장이며 비동질문장은 ‘그는 히브리인이다’, ‘그는 위대하다’ 등과 같이 주어와 술어의 지시물이 동일하지 않는 문장을 가리킨다.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Indiana: Eisenbrauns, 1990), 130-135 참조.
- 8) 명사문장과 ‘하바(הוה)문장’에서의 의미론적 범주는 ‘이다’, ‘있다’, ‘되다’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글(“‘to be’에 상응하는 우리말과 여러 언어에서의 비교연구”, 『언어학』 16:2 [2008], 70)을 보라.
- 9) 세 구성소 명사문장이란 주어, 술어라는 통사 구성성분 외에 제3의 구성성분(대개 3인칭 대명사나 지시대명사)을 포함하는 명사문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글(“성서 히브리어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3 [2013], 7-33)을 참조하라.

술어의 어순 등을 변수로 하여 조사 및 분석을 했다.<sup>10)</sup>

성서 아람어의 어순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서 아람어와 가장 유사한 대표적인 서북 셈어인 성서 히브리어와 비교했으며 또한 우가리트어, 페니키아어, 아랍어 등과 같은 다른 셈어들과도 비교했다. 그리고 최초의 셈어인 아카드어 및 아카드어 어순에 큰 영향을 끼친 수메르어와도 비교했다.

자료 수집과 분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서 관련 소프트웨어들인 어코던스, 바이블웍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중요한 도구들로 사용되었다.

### 3. 선행 연구

#### 3.1. 국내 선행 연구

유럽, 미국, 이스라엘의 경우 성서 히브리어 학계의 연구 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나 성서 아람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국내의 구약 학계의 경우 성서 아람어에 대한 활동은 더욱 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성서 히브리어나 고대근동학을 전공한 신진학자들 중에서 성서 아람어 문법서를 출판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쉬운 것은 성서 아람어의 통사론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sup>11)</sup>

본 주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 국내 연구는 주로 언어학자들 중에서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성서 아람어와는 개별 언어구조의 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순에 관한 보편적인 언어학적 지식이나 어순 이동과 초점, 어순 변이와 문장 의미 등의 지식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된다.<sup>12)</sup> 셈어의 어순과 관련된 한 편의 논문도 참고할 만한 가

10) 명사문장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글(“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관한 연구”, 『성경 원문연구』 35 [2014], 170-194)을 참조하라.

11) 국내의 아람어 문법서로는 김구원(『성서 아람어 문법』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12])과 본인(『성경 아람어 출판』 [용인: 도서출판 목양, 2012])의 저서가 전부이며 그 외에 세 권의 역서가 있을 뿐이다(F. J. Alger, 『성서 아람어 문법』, 김이곤 역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02]; E. G. Frederick, 『성경아람어 길라잡이』, 홍국평 역 [서울: CLC, 2012]; T. Lambdin and J. Huehnergard, 『타르굼 아람어 문법』, 배철현 역 [서울: 한님성서연구소, 2001]).

12) 본 연구에 도움이 되었던 몇 개의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신용권, “알타이 언어의 영향에 의한 중국어 어순 유형의 변화 -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과 후치사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어문학회』 (2015), 209-238; 김인철, 홍선호, “어순 변화의 영어사적 조명”, 『단국영어영문학회』 (2006), 40-54; 최준영, “고대영어의 어순변화”, 『한국언어과학회』 6:2

치가 있다.<sup>13)</sup>

### 3.2. 국외 선행 연구

성서 아람어 문법서는 1884년의 카우치(Emil Kautzsch)를 필두로 하여 바우어(Hans Bauer), 리앤더(Pontus Leander), 세거트(Stanislav Segert), 존스(Alger Johns), 그린스펀(Frederick E. Greenspahn), 반 펠트(Miles V. Van Pelt)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출판되었으며, 본 주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거나 매우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예를 들면, 1961년에 출판되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표준 문법서로서 사용된 로젠탈(Franz Rosenthal)의 『성서 아람어 문법』<sup>14)</sup>에서도 성서 아람어 동사문장에서의 어순은 자유롭다는 표현으로 본 주제를 매우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로젠탈 이후 엘리샤 키므론(Elisha Qimron)이 이스라엘에서 현대 히브리어로 출판한 『성서 아람어』 문법서<sup>15)</sup>에서는 성서 아람어의 형태론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한 이는 쉐퍼드(M. B. Shepherd)이다.<sup>16)</sup> 그는 특히 3장(Database Results and Extra-biblical Parallels, 63-104)에서 성서 아람어의 모든 문장을 통계 자료로 제시한다. 성서 아람어의 문장을 동사문장과 명사문장과 기타 문장으로 나눌 뿐 아니라 동사문장 안에서 동사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엘레판틴 아람어, 타르굼 아람어, 쿠파문서의 아람어 등 성경 외의 아람어 텍스트까지 취급하여 풍성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통계 자료에는 어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사나 불변사의 형태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본 주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누락되어 있다. 그 외에 야쿠보비치(I. Yakubovich), 쿡(E. M. Cook), 헤이스(C. E. Hayes) 등이 성서 아람어 어순에 대해 소논문을 썼다. 그들이 제시하는 통계 자료는 서로 차이가 있으며, 성서 아람어의 어순이 자유 어순임을 언급하면서도

(1999), 165-188; 현완송, “SOV 언어로서의 고대영어의 성격”, 『한국언어연구학회』 4 (1999), 117-129; 고영근, “언어 유형론과 개별 언어의 문법 기술 -민족어 자료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4 (2009), 147-189; 곽새라, “페르시아어 어순의 유형론과 통사적 분석”, 『중동연구』 28:2 (2009), 45-64.

13) 최진영, “아람어 기본어순에 대한 현대적 접근”,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6:2 (2016), 113-132.

14) Franz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1).

15) E. Qimron, *Biblical Aramaic*.

16) Michael B. Shepherd,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Aramaic* (Bern: Peter Lang, 2008).

기본적인 어순을 찾으려고 언어학적 관점(통사적, 의미론적, 화용론적)에서 시도했다.<sup>17)</sup>

#### 4. 성서 아람어의 어순

본 연구를 위해 에스라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모든 성서 아람어 텍스트를 조사했는데 독립절과 종속절을 포함하여 총 1002절 (clauses)을 전수조사하였다.<sup>18)</sup> 이 1002절을 동사문장, 명사문장, 분사문장, ‘하바(הוה)’(=to be)문장, 존재문장으로<sup>19)</sup> 나누어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 문장의 종류에 따른 성서 아람어의 분포

| 문장종류 | 동사문장  | 명사문장  | 하바문장 | 분사문장  | 존재문장 | 합계   |
|------|-------|-------|------|-------|------|------|
| 빈도수  | 609   | 116   | 17   | 247   | 13   | 1002 |
| 백분율  | 60.8% | 11.6% | 1.7% | 24.7% | 1.3% | 100% |

본 논문의 통계는 쉐퍼드<sup>20)</sup>의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성서 아람어의 절 수를 총 643개로 제시하는데 이는 우리의 통계와는 359개나 모자라는 수치이다. 그는 ‘절’의 개념을 ‘주어에 속해 있는 동사나 명사 술어를 포함하는 단어들의 조합’이라 정의하고 하나의 동사만으로도 절이 성립될 수 있음을 말한다. 절에 대한 그의 정의는 우리의 것과 동일하지만 그는 우선 모든 종속절을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우리는 817개의 독립절과 185개의 종속절을 제시했으며, 독립절만 비교하더라도 쉐퍼드의 통계와는 174개의 차이가 난다. 성서 아람어의 문장 중에는 ‘보다’, ‘알다’, ‘말하다’ 등의 타동사가 관계대명사로 연결되면서 그 뒤에 여러 개

17) E. M. Cook, “Word Order in the Aramaic of Daniel”, *Afroasiatic Linguistics* 9:3 (1986), 2-16; C. E. Hayes, “Word Order in Biblical Aramaic”,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Graduates in Near Eastern Studies* 1:2 (1990), 2-11; I. Yakubovich, “Information Structure and Word Order in the Aramaic of the Book of Daniel”, F. Hagen, ed., *Narratives of Egypt and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Uitgeverij Peeters en Departement Oosterse Studies, 2011), 373-396.

18) 총 1002절의 분포는 에스라서 171절, 다니엘서 828절, 예레미야서 3절이다.

19) 여기서 존재문장이란 ‘이타이’(יִתַּי)를 포함하는 문장을 가리키는데, 아람어 단어 ‘이타이’는 ‘있다’는 뜻이다. 그 단어의 품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명사 부사 불변사 존재사 등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존재문장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20) Michael B. Shepherd,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Aramaic*, 63-69.

의 절들이 길게 나열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웨퍼드는 그런 경우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종속절로 보아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런 경우라도 관계대명사를 포함하는 절만 종속절로 분류하고 그 뒤에 길게 나오는 여러 개의 절들은 모두 독립절로 포함시켰다.

웨퍼드는 ‘하바(הבה)’문장과 존재문장을 동사문장에 포함시키고 분사문장을 명사문장에 포함시켜 모든 문장을 동사문장과 명사문장으로만 분류하여 통계를 제시했는데 그의 통계에서는 동사문장이 67%, 명사문장이 33%로 나타난다. 우리의 통계를 그의 분류 방법대로 분류하되 독립절에서만 조사해 보았더니 동사문장이 61.3%, 명사문장이 38.7%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문장의 종류에 따른 성서 아람어의 분포가 다니엘서와 에스라서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2> 문장의 종류에 따른 다니엘서의 분포

| 문장종류 | 동사문장  | 명사문장  | 하바문장 | 분사문장  | 존재문장 | 합계   |
|------|-------|-------|------|-------|------|------|
| 빈도수  | 484   | 105   | 14   | 213   | 12   | 828  |
| 백분율  | 58.5% | 12.7% | 1.7% | 25.7% | 1.4% | 100% |

<표 3> 문장의 종류에 따른 에스라서의 분포

| 문장종류 | 동사문장  | 명사문장 | 하바문장 | 분사문장  | 존재문장 | 합계   |
|------|-------|------|------|-------|------|------|
| 빈도수  | 122   | 11   | 3    | 34    | 1    | 171  |
| 백분율  | 71.3% | 6.4% | 1.8% | 19.9% | 0.6% | 100% |

<표 2>와 <표 3>에 따르면 에스라서에서는 다니엘서보다 동사문장이 10% 이상 더 많이 나타나고 다니엘서는 에스라서보다 명사문장과 분사문장이 조금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스라서와 다니엘서 본문의 성격 차이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다니엘서는 예언서적인 성격과 묵시적 환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좀 더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진행상을 나타내는 분사와 대화와 묘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명사문장을 선호하였으며, 반면 역사적 사건에 기반을 둔 진술이 주된 내용인 에스라서에서는 동사문장을 좀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 4.1. 동사문장에서의 어순

동사문장의 어순에서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 주어

나타나는 경우와 주어가 생략된 경우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sup>21)</sup> <표 5>는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와 목적어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이며, <표 6>은 주어가 생략되고 술어와 목적어만 있는 경우이다. <표 7>은 문장에서 주어가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술어와 목적어의 순서만을 고려했을 때의 통계이다. 즉 VO의 순서에 SVO, VOS, VSO를 포함시켰으며 OV의 순서에 SOV, OSV, OVS를 포함시킨 수치라 할 수 있다.

<표 4> 동사문장(자동사)에서 주어와 술어의 어순

| 어순  | SV    | VS    | 합계   |
|-----|-------|-------|------|
| 빈도수 | 139   | 66    | 205  |
| 백분율 | 67.8% | 32.2% | 100% |

<표 5> 동사문장(타동사)에서 주어와 술어와 목적어의 어순

| 어순  | SVO   | SOV   | VOS  | VSO   | OSV  | OVS  | 합계   |
|-----|-------|-------|------|-------|------|------|------|
| 빈도수 | 33    | 12    | 3    | 9     | 2    | 5    | 64   |
| 백분율 | 51.6% | 18.8% | 4.7% | 14.1% | 3.1% | 7.8% | 100% |

<표 6> 동사문장(타동사)에서 술어와 목적어만의 어순(주어 생략)<sup>22)</sup>

| 어순  | VO    | OV    | 합계   |
|-----|-------|-------|------|
| 빈도수 | 88    | 91    | 179  |
| 백분율 | 49.2% | 50.8% | 100% |

<표 7> 타동사가 사용된 동사문장에서 술어와 목적어만의 어순(<표 5>+<표 6>)

| 어순  | VO    | OV    | 합계   |
|-----|-------|-------|------|
| 빈도수 | 133   | 110   | 243  |
| 백분율 | 54.7% | 45.3% | 100% |

<표 5>에서 <표 7>까지의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성서 아람어의 어순은 동사문장에서 매우 특이한 어순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유형론

21) 동사문장을 조사할 때 술어의 위치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목적어가 있을 때의 어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치사구나 부사, 불변사 등과 같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은 제외했다.

22) 우리의 통계 자료와 가장 근접한 것은 헤이스(C. E. Hayes)의 통계로, 그는 총 162개 중 OV 순서를 80개, VO 순서를 82개로 제시한다.



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언어든, 고대 언어든 특정 유형이 기본 어순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기본 어순에 따라 대표적인 언어들을 선정하기도 한다.<sup>23)</sup> 그러나 성서 아람어는 기본 어순이 나타나지 않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6가지 유형의 문장이 모두 발견된다. 그린버그(J. H. Greenberg)가 제시하는 보편 원리와 언어 유형론자들에 따르면 전치사를 위주로 하는 언어는 목적어가 술어 뒤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sup>24)</sup> 그러나 성서 아람어는 전치사만 사용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술어를 선행하는 문장이 매우 많이 나타난다. 목적어가 술어를 선행할 뿐 아니라 주어를 선행하는 문장도 나타난다. 콕새라에 따르면 OSV 어순을 가진 언어는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나<sup>25)</sup> 임흥빈이 소개하는 드라이어의 언어 분류에 따르면, SOV 언어가 497개, SVO 언어가 435개, VSO 언어가 85개, VOS 언어가 26개, OSV 언어가 9개, OVS 언어가 4개, 지배적 어순을 결한 언어가 172개로 분류되고 있다.<sup>26)</sup> 드라이어(M. S. Dryer)의 언어 유형에 따른 분류법에 의하면 성서 아람어는 지배적 어순을 결한 언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배적 어순을 결한 언어에 속한다고 분류한 172개의 언어 중 상당수는 좀 더 기본적인 어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성서 아람어는 동사문장에서 기본적인 유형을 추측하기 힘든 자유로운 어순을 갖고 있는데 모든 언어에는 기본 어순이 있다고 상정하고 논증을 하는 임흥빈의 접근이 과연 성서 아람어에서도 가능할지는 의문이 든다.<sup>28)</sup>

자동사가 사용된 경우 주어가 동사를 선행하는 문장이 주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 문장보다 두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타동사가 사용된 경우 성서 아람어의 어순은 가능한 모든 어순이 다 출현하는 매우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동사와 목적어만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VO와 OV 어순이 거의 비슷하게 출현한다.

23) 김인철, 홍선호, “어순 변화의 영어사적 조명”, 45; 콕새라, “페르시아어 어순의 유형론과 통사적 분석”, 48.

24) 신용권, “알타이 언어의 영향에 의한 중국어 어순 유형의 변화”, 220; 현완송, “SOV 언어로서의 고대영어의 성격”, 18; 콕새라, “페르시아어 어순의 유형론과 통사적 분석”, 48.

25) 콕새라, “페르시아어 어순의 유형론과 통사적 분석”, 48.

26) 임흥빈,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서강인문논총」 22 (2007), 60.

27) 독일어는 주절에서는 SVO 어순을 가지나 종속절에서는 SOV 어순을 가지므로 지배적 어순을 가지지 않은 언어에 분류되나, 내포절이 보다 더 기원적인 형식을 보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기본적인 것은 SOV 어순이라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임흥빈,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콕새라, “페르시아어 어순의 유형론과 통사적 분석”, 50 참조.

28) 임흥빈,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63-65.

성서 아람어가 동사문장에서 자유 어순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인접한 두 문장에서 VO와 OV 어순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다음 <예 1>을 보라.

<예 1>

וַאֲף שְׁמָהֶהֱם שְׁאַלְנָא לְהֵם לְהוֹדְעוֹתְךָ דִּי נִכְתָּב שְׁמֵ-גְבַרְיָא דִּי בְרָא שְׁיָהִם:

또한 당신께 알리려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지도자들인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것입니다. (스 5:10)

부정사구에서 거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어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 다음 <예 2>와 <예 3>을 보라.

<예 2>

בֵּית-אַלְהָא דְנָה לְבַנָּא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스 5:13)

<예 3>

לְמִבְנָא בֵּית-אַלְהָא דְךָ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스 5:17)

하나의 동사가 전후로 목적어를 갖는 특이한 문장도 발견된다. 다음 <예 4>와 <예 5>를 보라.

<예 4>

וּשְׂאֵר חֵיוֹתָא הָעֵדִיּוֹ שְׁלִטְנְהוֹן

그들은 그 남은 짐승들의 권력을 빼앗았다. (단 7:12)

<예 5>

גְּבַרְיָא אֶלְךָ דִּי הֶסְקוּ לְשִׁדְרָךְ מִיֶּשֶׁד וְעַבְדֵּי נְגוּ קַטְלֵי הַמּוֹן שְׁבִיבָא דִּי נוּרָא: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이 사람들을, 그들을 죽였

다. (단 3:22)

동사문장에서 부정어가 동사 앞에서 사용되지 않고 목적어 앞에서 사용되어 ‘부정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문장이 발견된다. 다음 <예 6>을 보라.

<예 6>

לֹא אָסַר רְשָׁמַת

당신은 금지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6:13)

성서 아람어의 어순이 독립절과 종속절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절과 종속절에서의 어순을 비교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8> 동사문장(타동사)에서 술어와 목적어만의 어순(주어 생략)과 독립절/종속절의 관계

| 독립절/<br>종속절 | 어순  | VO    | OV    | 합계   |
|-------------|-----|-------|-------|------|
| 독립절         | 빈도수 | 64    | 74    | 138  |
|             | 백분율 | 46.4% | 53.6% | 100% |
| 종속절         | 빈도수 | 24    | 17    | 41   |
|             | 백분율 | 58.5% | 41.5% | 100% |

<표 8>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성서 아람어의 동사문장의 어순은 독립절과 종속절에 따라 어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독립절과 종속절에 따라 어순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사의 형태, 시제, 서술체와 대화체, 에스라서와 다니엘서 등을 살펴보았더니,<sup>29)</sup> 동사의 형태 중 미완료 형태만 어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9>를 보라.

<표 9> 동사문장(타동사)에서 술어와 목적어만의 어순(주어 생략)과 동사의 형태와의 관계

| 완료/<br>미완료 | 어순  | VO    | OV    | 합계   |
|------------|-----|-------|-------|------|
| 완료         | 빈도수 | 49    | 40    | 89   |
|            | 백분율 | 55.1% | 44.9% | 100% |
| 미완료        | 빈도수 | 29    | 42    | 71   |
|            | 백분율 | 40.8  | 59.2% | 100% |
| 명령         | 빈도수 | 10    | 9     | 19   |
|            | 백분율 | 52.6% | 47.4% | 100% |

29) 장르가 다른 에스라서와 다니엘서가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통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으나 어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 모든 통계 자료를 종합 분석해 볼 때 성서 아람어 동사문장의 어순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 4.2. 명사문장에서의 어순

성서 아람어 명사문장에서의 분석은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sup>30)</sup>

<표 10> 명사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어순

| 두/세 구성소       | 어순  | SP    | PS    | 합계   |
|---------------|-----|-------|-------|------|
| 두 구성소<br>명사문장 | 빈도수 | 87    | 18    | 105  |
|               | 백분율 | 82.9% | 17.1% | 100% |
| 세 구성소<br>명사문장 | 빈도수 | 6     | 1     | 7    |
|               | 백분율 | 85.7% | 14.3% | 100% |

<표 11> 명사문장에서 의미론적 범주에 따른 주어와 술어의 어순<sup>31)</sup>

| 의미론적 범주 | 어순  | SP    | PS    | 합계   |
|---------|-----|-------|-------|------|
| 이다      | 빈도수 | 55    | 11    | 66   |
|         | 백분율 | 83.3% | 16.7% | 100% |
| 있다      | 빈도수 | 34    | 5     | 39   |
|         | 백분율 | 87.2% | 12.8% | 100% |

<표 12> 명사문장에서 동질문장/비동질문장과 주어와 술어의 어순

| 동질/비동질 | 어순  | SP    | PS    | 합계   |
|--------|-----|-------|-------|------|
| 동질문장   | 빈도수 | 9     | 1     | 10   |
|        | 백분율 | 90%   | 10%   | 100% |
| 비동질문장  | 빈도수 | 37    | 9     | 46   |
|        | 백분율 | 80.4% | 19.6% | 100% |

30) 주어, 술어 이외에 또 다른 구성성분을 갖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는 세 번째 구성성분의 위치는 무시하고 주어와 술어의 위치만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31) 성서 아람어의 명사문장에서는 의미론적 범주 중 ‘되다’에 해당하는 문장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동질문장/비동질문장을 포함하여 명사문장에서 주어와 술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본인의 글(“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관한 연구”, 170-194)을 보라.

성서 아람어 동사문장의 어순은 매우 자유스러운 반면 명사문장의 어순은 주어-술어의 비율이 술어-주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술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의미론적 범주나 동질문장/비동질문장의 여부와도 관계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독립절과 종속절이나 서술체와 대화체와 관계 없이 주어-술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sup>32)</sup>

#### 4.3. 분사문장에서의 어순<sup>33)</sup>

성서 아람어에서 분사는 한정동사의 감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사문장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분사문장에서 분사가 타동사의 역할을 할 때 주어의 여부를 무시하고 목적어와 분사의 어순만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3> 분사문장에서 분사와 목적어의 어순

| 어순  | 분사-목적어 | 목적어-분사 | 합계   |
|-----|--------|--------|------|
| 빈도수 | 49     | 10     | 59   |
| 백분율 | 83.1%  | 16.9%  | 100% |

성서 아람어에서 분사는 한정동사의 감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포함하는 문장의 통계는 동사문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성서 아람어에서 분사가 한정동사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둘은 구분하여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사문장에서 분사가 자동사로 사용되면서 주어가 나타나는 경우 주어와 분사와의 어순을 비교해 볼 때 타동사로 사용될 때와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다음 표를 보라.

32) 주어-술어의 비율은 독립절에서 82.4%, 종속절에서 85.7%, 서술체에서 92.9%, 대화체에서 81.3% 나타난다.

33) ‘하바(חבא)’문장의 경우 성서 아람어에 총 17회 나타나는데, 그 중 주어와 술어가 함께 나타나는 문장은 11개밖에 되지 않으므로 본 논의에서 제외시켰으며 ‘하바(חבא)’가 분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49회나 나타나서 분사문장의 어순에 대한 조사에서 ‘하바(חבא)’를 포함하는 분사문장을 다루었다.

<표 14> 분사문장에서 분사와 주어의 어순(목적어 제외)

| 어순  | 주어-분사 | 분사-주어 | 합계   |
|-----|-------|-------|------|
| 빈도수 | 55    | 34    | 89   |
| 백분율 | 61.8% | 38.2% | 100% |

분사문장에서 분사와 주어의 어순은 <표 4>와 비교해 볼 때 동사문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서 히브리어의 분사문장(93% 대 7%)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성서 아람어 분사문장은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하바(הוה)’(to be)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 분사와 ‘하바(הוה)’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분사문장에서 분사와 ‘하바(הוה)’의 어순

| 어순  | 하바-분사 | 분사-하바 | 합계   |
|-----|-------|-------|------|
| 빈도수 | 25    | 21    | 46   |
| 백분율 | 54.3% | 45.7% | 100% |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하야(היה)’(to be)가 조동사로 분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거의 고정적으로 하야가 분사를 선행하는 데 반해 성서 아람어는 이 경우에도 매우 자유스런 어순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예 7>은 인접한 두 문장에서 분사-하바의 어순과 하바-분사의 어순이 함께 사용됨을 보여준다.

<예 7>

מְתַעֲרְבִין לְהוֹן בְּזַרְעֵ אֲנָשָׁא וְלֹא לְהוֹן דְּבִקְוִין הָנָה עִסְדָּנָה

후손들은 섞일 것이며, 서로 연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 2:43)

## 5. 성서 아람어 어순의 특이성과 요인

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성서 아람어는 동사문장에서 VO 어순과 OV 어순이 약 절반씩 나타난다. 성서 아람어를 최초의 셈어인 아카드어와 성서 아람어가 속한 서북 셈어 및 다른 셈어와 비교해 봄으로써 성서 아람어 어순이 그 언어들과 어떤 차이점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성서 아랍어 어순의 특이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 5.1. 성서 히브리어 및 타 셈어와의 비교

언급한 바와 같이 성서 아랍어의 어순 분석을 위해 성서 히브리어를 택한 이유는 성서 히브리어가 성서 아랍어와 가장 유사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우선 두 언어는 22개의 동일한 알파벳을 사용할 뿐 아니라 음운론 체계가 거의 흡사하다. 형태론에서 볼 때 명사, 형용사, 동사, 의문사, 인칭대명사, 전치사, 의문불변사, 접속사, 존재를 나타내는 불변사 등 거의 모든 품사에서 문법이 서로 일치한다. 동사에서도 시제의 표지가 아닌 완료, 미완료 두 개의 대조적인 상의 표지인 것, 분사, 부정사, 명령, 유형, 인칭, 성, 수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 어휘의 측면에서 볼 때도 대다수가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어원의 단어를 사용한다. 모든 셈어 학자들과 성서 언어 학자들이 성서 아랍어와 성서 히브리어를 서로 다른 별개의 언어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그 둘은 방언이라 해도 좋을 만큼 서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성서 아랍어는 성서 히브리어뿐 아니라 서북 셈어에 속하는 우가리트어, 페니키아어, 그리고 남부 셈어에 속하는 아랍어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가 동사문장에서의 어순에서 나타난다. 그 언어들은 동사문장에서 동사가 문두에 오는 것이 기본적인 어순이다.<sup>34)</sup> 셈어가 아닌 함족어에 속하는 이집트에서도 기본 어순은 VSO이다.<sup>35)</sup> 그러므로 목적어는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것이 셈어의 기본 어순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그러나 성서 아랍어는

34) 여기서 기본 어순은 산문체에서의 어순을 말한다. 셈어의 운문체에서는 평행법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평행법의 한 방법으로 교차대구법이 사용되므로 운문체의 어순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요제프 트롭퍼(J. Tropper), 『우가리트어 문법』, 주원준 개역 (서울: 한남성서연구소, 2010), 160; D. Silvan, *A Grammar of the Ugaritic Language* (Leiden: Brill, 1997), 210. 최진영(“아랍어 기본어순에 대한 현대적 접근”)은 아랍어 문장의 기저구조를 VSO가 아닌 SVO로 규정하였으나 대부분의 아랍어 문법가들은 아랍어 동사문장의 기본 어순을 VSO로 본다. 오명근, 『아랍어 구문어체 비교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4), 60; P. F. Abboud, *Elementary Modern Standard Arabic, Part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157을 보라.

35) S. A. Gardiner, *Egyptian Grammar, Being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eroglyphs*, 3rd ed. (Oxford: Ashmolean Museum, 1957), 34.

36) 성서 아랍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동사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성서 아랍어 텍스트가 포함된 동일한 책인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에 기록된 성서 히브리어 텍스트를 모두 조사해 보았더니 VO 어순이 155개(에스라 71개, 다니엘 84개) 나타났고 OV 어순이 12개(스 1:2, 4, 11; 9:12[2번]; 10:6[2번]; 단 2:3; 10:3[2번]; 11:31, 41) 나타나 VO 어순이 92.8%나 된다.

VO와 OV 어순이 약 절반씩 차지하므로 서북 셈어와 다른 셈어의 기본 어순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5.2. 아카드어와 수메르어와의 비교

아카드어는 최초의 셈어이며 동부 셈어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아카드어를 셈어로 분류하는 이유는 명사, 형용사, 인칭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동사 등 형태론과 음운론에서 서북 셈어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카드어는 동사의 어순에 있어서 동사가 문장의 끝에 위치하는 OV 어순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 아카드어를 제외한 다른 셈어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아카드어의 이러한 현상은 수메르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sup>37)</sup>

기원전 3200년 경에 세계 최초의 언어로 불리는 수메르어 문서가 발견되었으나 수메르어는 아직 정확한 계통이 밝혀지지 않았다. 수메르어는 수메르 민족이 사용했던 언어이며, 수메르 민족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이며 가장 빠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Ur)를 중심으로 기원전 33세기부터 약 1000여 년간 생활했던 민족이다. 수메르어는 교착어로서 여러 형태의 접사나 후치사와 격조사가 발달했으며 통사론에서 명사, 관형사, 지시사, 수사, 관계절, 의문사, 부사절 등의 어순이 우리말과 유사하며 SOV를 기본 어순으로 수식절이 아무리 길더라도 문장에서 동사는 항상 문미에 온다. 우리말과 유사하게 동사 앞에 오는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타동사든 자동사든 간에 동사는 항상 고정적으로 문장의 끝에 위치한다.<sup>38)</sup> 따라서 수메르어는 셈어, 함어, 인도-유럽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는 시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엄청난 간격이 있지만 형태론과 의미론과 통사론에 있어서 우리말이 속해 있는 알타이어와 매우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는 언어이다.<sup>39)</sup>

37) J. Huehnergard, *A Grammar of Akkadian*, Harvard Semitic Museum Studies 45 (Atlanta: Scholars Press, 1996), XXV; D. O. Edzard *Sumerian Grammar*, Handbook of Oriental Studies (Leiden; Boston: Brill, 2003), 174.

38) J. Hayes, *Sumerian*, Languages of the World/Materials 68 (München; Newcastle: Lincom Europa, 1997), 30; D. O. Edzard, *Sumerian Grammar*, 174; T. Marie-Louise, *The Sumeria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its History and Grammatical Structure* (Copenhagen: Akademisk Forlag, 2001), 51.

39) 수메르어를 전공하여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 10여 년간 강의하기도 했던 조철수는 수메르어가 알타이어에 속할 가능성에 대해 언어적으로 접근했을 뿐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서울: 김영사, 2003)이라는 책을 통해 수메르의 신화나 영웅전이 우리나라의 것과 유사함을 잘 보여준다. 지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우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수메르어 화자들과 아카드어 화자들은 함께 생활했다. 따라서 아카드어는 수메르어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으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동사의 어순이다. 아카드어 서체에는 구두점이 없기 때문에 문장의 끝이 어디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동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므로 성서 아람어의 어순은 OV를 기본 어순으로 가지는 아카드어와도 많은 차이가 있다.

### 5.3. 성서 아람어 어순에 영향을 끼친 요인

살펴본 바와 같이 성서 아람어는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언어이다. 성서 아람어가 자유로운 어순을 갖게 된 요인을 운문체적인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지 고려해 보고자 한다. 같은 서북 셈어에 속한 성서 히브리어나 우가리트어는 산문체에서 VO가 기본 어순이지만 운문체에서는 어순이 자유롭게 나타난다. 이 언어들의 운문체에서 자유로운 어순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차대구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교차대구법은 서북 셈어 운문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평행법의 한 방법이다. 앞에서 나온 <예 7>과 같은 문장을 교차대구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문장은 성서 아람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에 기록된 성서 아람어는 대부분 산문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서 아람어에서의 자유로운 어순 현상을 운문체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몇몇 학자들이 성서 아람어 동사문장의 어순에서 기본 어순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서로 다른 어순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어순에 대한 설명을 ‘화제-초점’(topic-focus) 이론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sup>40)</sup> 결국 성서 아람어의 특이한 어순 현상에

---

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수메르어가 우리말이 속한 알타이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메르어를 전공한 한국 학자들에 의해 이미 지적되었으며 본 연구자의 저서와 소논문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철수, “수메르-국어 고어 문법 범주 대조분석”, 『언어학』 19 (1996), 357-374; 박기용, “수메르어 격체계 대조분석”, 『언어학』 16 (1994), 81-120; 권성달, “‘to be’에 상응하는 우리말과 여러 언어에서의 비교연구”, 69-91; Sung-dal Kwon, “HYH”(=to be) Sentences in Biblical Hebrew (written in Hebrew) (Jerusalem: Yuval Tal Ltd., 2013) 등 참조. 우리말의 계통과 관련해서는 알타이어족설과 반알타이어족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주원(“초청논단: 유라시아의 알타이 언어와 한국어의 계통 문제”, 『e-Eurasia』 15 [2009], 1-5.)이 잘 정리하였다. 알타이어족설에 대한 반알타이어족설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에 대한 합리적인 답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알타이어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고영근, “언어 유형론과 개별 언어의 문법 기술-민족어 자료를 중심으로-”, 147-189를 참조하라.

40) I. Yakubovich, “Information Structure and Word Order in the Aramaic of the Book of Daniel”, 373-396. 화제-초점 이론에서는 주어, 술어라는 용어 대신에 알려진 정보인지, 새로운 정

대한 요인을 언어적인 관점이나 이론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적 관점에서 찾기 힘들다면 지정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아람 민족의 기원을 메소포타미아의 서북쪽 지역으로 본다. 그들이 처음 사용했던 언어는 고대 아람어로 불리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북 셈어와 동일한 VO 어순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 이후 신아시리아제국이 아람 민족을 정복한 후 민족이주정책을 펼침에 따라 아람 민족은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sup>41)</sup> 그때부터 아람어는 서부 아람어 방언과 동부 아람어 방언으로 나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sup>42)</sup> 국제어로 사용된 아람어는 동부 아람어 방언으로서 이 방언이 국제어로서 힘을 얻게 된 것은 동부 아람어를 사용하던 지역이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의 동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어로 사용된 공식 아람어는 서부 아람어 방언보다는 동부 아람어 방언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 갔던 유대인들이 성서를 기록 할 때는 국제어로 자리매김한 공식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 공식 아람어가 국제어로 사용되기 전에는 아카드어가 1,000년 이상이나 고대 근동지역에서 국제어로 위상을 떨쳤다. 그러나 아카드어가 수백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었던 반면 아람어는 간편한 알파벳으로 구성되었고 사용하고 습득하기에 훨씬 편한 언어였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제국이 새로운 국제어로 공식 아람어를 채택하게 되었고, 공식 아람어는 문어로서뿐 아니라 구어로서도 오랜 기간 고대 근동 지역에서 편만하게 사용되었다.<sup>43)</sup>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했던 일부 아람 민족들은 원래 사용하던 VO 어순을 따르다가 점차적으로 아카드어를 사용하던 이들의 영향을 받아 OV 어순도 혼합하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44)</sup>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

보인지의 여부에 따라 화제(알려진 정보)와 초점(새로운 정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어순이 도치된 문장의 경우 초점이 앞으로 이동되어 강조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기본적인 어순을 가진 언어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론이므로 자유로운 어순을 갖는 성서 아람어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 41) 요제프 트롭퍼(J. Tropper), 『우가리트어 사전』, 주원준 개역 (서울: 한남성서연구소, 2010), 21.  
 42) 아람어가 서부 아람어와 동부 아람어로 나뉘어진 것을 후기 시대(기원후 2-3세기)로 보기도 하지만 모스카티(S. Moscati,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0], 10)는 고대 아람어가 사용되던 시기일 것으로 본다.  
 43) S. E. Fassberg, "Infinitival Forms in Aramaic", J. C. Salmons, ed., *Historical Linguistics 2005*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5), 239. 공교롭게도 아람어가 국제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던 기원전 8세기경에 아람 민족은 세력을 거의 잃게 된다.(F. Skolnik, *Encyclopaedia Judaica*, vol. 2, 338. 참조)  
 44) 우리는 이미 수메르어의 영향을 받은 아카드어가 형태론이나 다른 통사적인 요소보다는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성서 아람어는 VO와 OV 어순 두 가지를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는 양상을 띠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6. 결론

성서에 아람어로 기록된 모든 텍스트를 어순을 중심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명사문장에서는 기본 어순이 SP로서 주어-술어 선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분사문장에서는 기본 어순이 VO로서 술어-분사 목적어 선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분사가 ‘하바(הוּבַּ)’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는 그 둘의 순서가 자유롭게 나타났다. 반면, 성서 아람어는 동사문장의 어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모두 포함된 문장에서는 가능한 어순, 즉 6개의 어순이 모두 나타났으며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만을 비교했을 때 VO와 OV 어순이 거의 절반씩 나타났다. 따라서 성서 아람어 동사문장에서는 기본 어순을 찾아내기 힘들었다. 즉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성서 아람어 동사문장이 자유 어순을 갖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다각도로 조사해 보았으나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는 요인을 찾을 수 없었으며 지정학적, 역사학적 요인에서 찾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공식 아람어였던 성서 아람어의 어순 비율이 VO와 OV 어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신아시리아 제국의 민족이주정책 이후 이주하게 된 아람 민족들이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동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고대 아람어와 이주 지역에서 사용했던 아카드어의 영향을 받아 아람어의 어순에 변화가 생겨 두 어순이 자유롭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한다면 충분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고대근동 문서자료가 빈약하여 연구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고대 아람어 문서에 대한 1차 자료 수집에 문제가 노출되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성서 아람어 외의 아람어로 된 여러 가지 문서들(고대 아람어, 공식 아람어, 중기 아람어의 문서들)에 대해서도 통계 조

---

어느 한 특정 현상(동사가 문미에 위치하는 현상)만 크게 부각되어 작용한 실례를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성서 아람어가 아카드어의 영향을 받을 때도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순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슈무엘 파스버그, “아람어 역사와 문법”, 303. 파스버그에 의하면 동쪽 지역의 아람어 문헌들과 방언에서는 OV 어순이 나타나고 고대 아람어와 서쪽 방언에서는 VO 어순이 나타난다고 한다.

사를 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한다면 통시적 연구는 물론 공시적 연구를 통해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어순, 성서 아람어, 셈어, 수메르어, 아카드어.

word order, Biblical Aramaic, Semitic language, Sumerian, Akkadian.

(투고 일자: 2017년 7월 28일, 심사 일자: 2017년 9월 4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고영근, “언어 유형론과 개별 언어의 문법 기술 -민족어 자료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4 (2009), 147-189.
- 곽새라, “페르시아어 어순의 유형론과 통사적 분석”, 『중동연구』 28:2 (2009), 45-64.
- 권성달, “‘to be’에 상응하는 우리말과 여러 언어에서의 비교연구”, 『언어학』 16:2 (2008), 69-91.
- 권성달, 『성경 아람어 율판』, 용인: 도서출판 목양, 2012.
- 권성달, “성서히브리어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3 (2013), 7-33.
- 권성달,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5 (2014), 170-194.
- 김구원, 『성서 아람어 문법』,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12.
- 김인철, 홍선호, “어순 변화의 영어사적 조명”, 『단국영어영문학회』 12 (2006), 40-54.
- 김주원, “초청논단: 유라시아의 알타이 언어와 한국어의 계통 문제”, 『e-Eurasia』 15 (2009), 1-5.
- 박기용, “수메르어 격체계 대조분석”, 『언어학』 16 (1994), 81-120.
- 신용권, “알타이 언어의 영향에 의한 중국어 어순 유형의 변화 -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과 후치사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어문학회』 85 (2015), 209-238.
- 오명근, 『아람어 구문어체 비교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4.
- 임홍빈,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서강인문논총』 22 (2007), 53-120.
- 조철수, “수메르-국어 고어 문법 범주 대조분석”, 『언어학』 19 (1996), 357-374.
- 조철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서울: 김영사, 2003.
- 최준영, “고대영어의 어순변화”, 『한국언어과학회』 6:2 (1999), 165-188.
- 최진영, “아람어 기본어순에 대한 현대적 접근”,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6:2 (2016), 113-132.
- 현완송, “SOV 언어로서의 고대영어의 성격”, 『한국언어연구학회』 4 (1999), 117-129.
- Alger, F. J., 『성서 아람어 문법』, 김이곤 역,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02.
- Fassberg, S. E., “아람어 역사와 문법”, 『고대 히브리어 연구』, 최창모, 박미섭 편,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279-312.
- Frederick, E. G., 『성경아람어 길라잡이』, 홍국평 역, 서울: CLC, 2012.
- Lambdin, T. and Huehnergard, J., 『타르굼 아람어 문법』, 배철현 역, 서울: 한남성서연구소, 2001.
- Tropper, J., 『우가릿어 문법』, 주원준 개역, 서울: 한남성서연구소, 2010.

- Tropper J., 『우가리트어 사전』, 주원준 개역, 서울: 한님성서연구소, 2010.
- Abboud, P. F., *Elementary Modern Standard Arabic*, Part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Cook, E. M., “Word Order in the Aramaic of Daniel”, *Afroasiatic Linguistics* 9:3 (1986).
- Edzard, D. O., *Sumerian Grammar*, Handbook of Oriental Studies, Leiden; Boston: Brill, 2003.
- Fassberg, S. E., “Infinitival Forms in Aramaic”, J. C. Salmons, ed., *Historical Linguistics 2005*,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5.
- Gardiner, S. A., *Egyptian Grammar, Being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eroglyphs*, 3rd ed., Oxford: Ashmolean Museum, 1957.
- Hayes, C. E., “Word Order in Biblical Aramaic”,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Graduates in Near Eastern Studies* 1:2 (1990), 2-11.
- Hayes, J., *Sumerian*, Languages of the World/Materials 68, München; Newcastle: Lincom Europa, 1997.
- Huehnergard, J., *A Grammar of Akkadian*, Harvard Semitic Museum Studies 45, Atlanta: Scholars Press, 1996.
- Kwon, Sung-dal, “HYH”(=to be) Sentences in Biblical Hebrew (written in Hebrew), Jerusalem: Yuval Tal Ltd., 2013.
- Marie-Louise, T., *The Sumeria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its History and Grammatical Structure*, Copenhagen: Akademisk Forlag, 2001.
- Moscatti, S.,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0.
- Qimron, E., *Biblical Aramaic* (written in Hebrew), Israel: Ben-Gurion University Press, 1993.
- Shepherd, Michael B.,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Aramaic*, Bern: Peter Lang, 2008.
- Silvan, D., *A Grammar of the Ugaritic Language*, Leiden: Brill, 1997.
- Skolnik, F., *Encyclopaedia Judaica*, 2nd ed., vol. 2, Detroit: Thomson Gale, 2007.
-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Indiana: Eisenbrauns, 1990.
- Yakubovich, I., “Information Structure and Word Order in the Aramaic of the Book of Daniel”, F. Hagen, ed., *Narratives of Egypt and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Uitgeverij Peeters en Departement Oosterse Studies, 2011, 373-396.

<Abstract>

## **A Study on the Word Order in Biblical Aramaic**

Sung-dal Kw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ramaic is a language affiliated with the north-west Semitic languages, which include Ugaritic, Phoenician, and Hebrew. A common characteristic of Semitic languages is the initial position of the verb within the sentence. However, the word order in Biblical Aramaic, the formal Aramaic language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north-west Semitic languages. This in-depth study examines all the sentences in Biblical Aramaic, specifically the 1002 Biblical Aramaic clauses, in order to explore word order. Sentence types (verbal, nominal, participial, and HAVA [=to be] sentences, etc.), verb forms, subject-predicate-object word order, descriptive and colloquial styles, tense, independent and subordinate clauses, etc. were considered.

The greatest differences appear in the word orders of verbal sentences. All possible word orders, i.e. all the six word orders appear in sentences where subject, verb, and object are included, while the word orders of VO and OV account for almost half of the samples when the orders of verbs and objects are considered. Thus, verbal sentences in Biblical Aramaic can be said to have flexible word orders.

To determine what factors influence word order in Biblical Aramaic, we have employed various parameters in our investigations, and made comparisons with the word orders of Biblical Hebrew, Akkadian and Ugaritic languages, Arabic, and Sumerian, the most ancient language. However, no linguistic factors were discovered, and thus it was noted that examining geographic and historical factors was necessary. We conclude that movement by the Aramaic people following the national migration policy of the Neo-Assyrian Empire resulted in Biblical Aramaic or formal Aramaic having the flexible word order, as the original ancient Aramaic from the eastern area of Mesopotamia received influence from the Akkadian language used in the area to where migration took place.